

B-6. 한국인 전치열에서 치간유두 존재와 치간골과 치아접촉점 거리와의 관계

정동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Background

현대인들은 보다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보다 심미적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치과의사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이쁜 치아를 넘어서 total dentofacial harmony concept을 가져야 한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 이번 연구는 Esthetic Smile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성인의 상악 전치열에서 치간유두 존재 정도와 치간골과 치아접촉점 사이 수직거리 사이를 측정하여 이 두 요소 사이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였다.

Method

59명의 환자(평균 37.9세)를 대상으로 상악 6전치 사이의 257개 치간 유두를 Jemt(1997)의 Papilla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Williams probe를 이용한 sounding을 통해 치아접촉점에서 치조골능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Result

결과는 257 치간부위의 평균 유두 지수는 1.95, 수직 거리 평균은 5.07mm를 보여주었다. 두 요소의 Pearson Correlation은 -0.819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P=0.000)

치아 접촉점과 치조골능 수직거리가 3mm일 때에는 92.5%에서 치간 유두 소실이 없었으나, 4mm일 때에는 48.4%, 5mm일 때에는 89.2%에서 6mm일 때에는 95.6%에서 치간 유두 소실이 있었다.

Conclusion

1. 한국성인 전치부에서 유두 지수와 치아 접촉점과 치조골능 수직거리 사이에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2. 상악 전치부에서 수직거리가 3mm일 때에는 92.5%, 4mm일 때에는 51.6%, 5mm일 때에는 11.8%, 6mm일 때에는 단지 4.4%에서만 치간 유두 소실이 없었다.